

사회

■ 초등생 납치 성폭행 '김수철 사건' 1년, 초등학교는 지금...

성범죄자 교문 출입 얼마든지 가능

경비·순찰 극소수... 등·하교 불안 여전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던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학교주변은 여전히 아동범죄에 무방비 상태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147곳 가운데 경비실을 설치해 경비원이 상주하는 학교는 36곳에 불과하다. 이 같이 경비원이 상주하는 학교는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된 곳으로 시설비 2750만원과 매년 인건비 2000만원이 소요된다. 나머지 111개 학교는 예산 지원이 없어 경비실(상주 경비원)을 두지 못해 아동 안전망이 허술한 실정이다.

지난 3월 12시50분, 광주시 북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2학년으로 보이는 남녀 어린이 10명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이들을 돌보는 어른이나 학교 방법요원 등은 보이지 않았다.

교문을 통해 누구나 학교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도 안전 차원에서 확인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단지 교문에는 '본교를 방문하시는 분은 배움터지킴이실(학교 순찰을 맡은 지킴이 교사 1명이 배치된 곳으로 대개 학교 건물에 설치)에서 방문자증을 받으신 후 응모를 보시기 바랍니다'란 표지판만 나붙어 있었다.

같은 날 광주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 정문에는 경비실이 없었고, 건물에 들어가 복도에서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고 교실을 기웃거리는데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광주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아동안전을 위해 조치한 것은 1명의 배움터지킴이 교사를 배치한 것 뿐이었다.

이와 함께 구청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겸해 교통 및 안전지도를 했던 '아동지킴이' 사업도 상당수 학교에서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지킴이 사업은 동구 10곳·서구 19곳·남구 18곳·북구 19곳·광산구 26곳 등 모두 92개 초등학교만 실시하고 있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55곳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은 지난해 6월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아동 안전망 활성화를 위한 협력단체 합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루 2~3번씩 학교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은 올해 들어 매주 한 두차례 정도로 순찰을 줄였다는 게 학교측의 얘기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매일 데리러 학교에 간다는 김모(여·37)씨는 "사건이 터지면 분노를 피하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다"며 "모든 학교에 경비

실에 설치해 입구에서부터 방문객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때문에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며 "안전강화 학교 지정이 아니라라도 외부인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등 각 학교마다 자체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수철 사건=2010년 6월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용직 노동자 김수철(45)이 등교하던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480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여파로 오는 7월24일부터는 성폭력범죄자의 상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본격 시행된다.



캠퍼스는 열공중 20일까지 예정돼 있다.

본격적인 여름 날씨를 보인 5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중앙도서관에서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이 책과 씨름하느라 여념이 없다. 전남대의 기말시험은 14일부터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소형선박 밀입국 중국인 4명 붙잡아

목포해경, 3명 추적중

지난달 29일 목포에서 밀입국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형 선박이 발견된 가운데 이 선박을 타고 몰래 입

국한 중국인 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은 5일 소형 선박을 이용해 밀입국한 중국인 고모(44)씨·묘모(40)씨 등 2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달 29일 목포시 대반동 해안가에서 발견된 1t급 소형선박을 이용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밀집지역 원룡에서 고씨 등과 함께 소형 선박을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강모(38)씨·강씨의 부인(36) 등 2명이 붙잡혔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보해저축銀 돈 받고 정보 제공

현직 검찰 수사관 체포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이 체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5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뇌물수수)로 목포지청 수사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의 지인으로부터 은행 측 수사관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정보를 준 대가로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잠적 중이던 오 대표 측에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A씨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광주지검 특수부에 수사를 모두 이첩하기 전 보해저축은행 수사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사실을 감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3일 6000여 원대의 불법·부실대출을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이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오 대표가 6000여원대의 불법·부실대출을 하면서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보해저축은행은 지난 1971년 목포에서 설립됐으며, 최근 불법·부실대출 등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인해 영장이 정지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벼 싸게 납품해 주겠다” 속여

유통회사 돈 56억 꿀꺽 2명 구속

광주지방경찰청은 3일 “벼를 싸게 납품해 주겠다”고 속여 전남 모 농특산물 유통회사로부터 선납대금 56억여 원을 편취한 선모(42)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권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곡 유통업자들이 이들은 지난 3월 초순 이 유통회사에 조곡 40kg짜리 20만 포대(91억원)를 시세보다 싸게 납품해 주겠다고 속여 선납대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56억여원을 은행계좌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급금을 노리고 8개월 전부터 범행을 모의한 이들은 이 유통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로비 명목으로 선물 공세와 술 접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미회수 피해액 28억여원의 사용처와 은닉 장소를 캐는 한편 이 유통회사 측에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靑 비서관이라면 안 통하는데 없었다

대학상대 사기 30대 징역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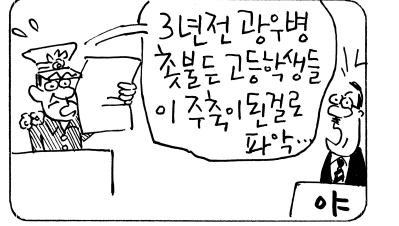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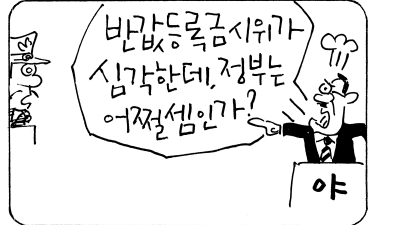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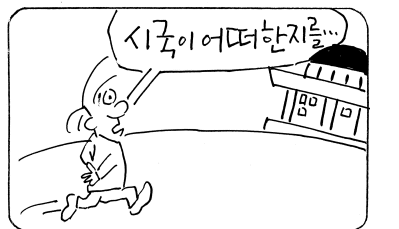
광주지법 형사6단독 허양운 판사는 5일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대학교 직원 채용과 용역업체 계약을 강요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

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6~7월 자신을 청와대 직원으로 속여 광주 A대 학교 간부에게 직원 채용을 요구, 2명이 이 대학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청와대 부속실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광주 A대학교와 4억 1000여만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이 업체와 체결한 혐의도 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물 고인 도로 차 침수 국가 25% 책임 있다”

빗물이 고인 도로에서 앞차를 따라 운전하다가 침수로 차가 고장 나면 운전자와 국가에 3대 1의 비율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7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이 물 고인 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 피해를 봤다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동부화재에 195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부킹녀와 합세 아내에 폭력 휘둘러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과 함께 귀가하던 30대가 마중나와 있던 아내에게 발각되자 폭력을 행사해 경찰서행. ○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31)씨는 이날 새벽 2시45분께 바레다 주재하며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까지 따라온 부킹녀 B(여·38)씨와 합세해 자신의 아내(29)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광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주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나무러자 폭력을 행사.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종로5가역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765-994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www.kjhr.com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